

CSE NEWSLETTER

@ PNU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전공 뉴스레터

- 01 정컴 소식** 신입생 학부모 초청간담회, 조맹섭 박사 초청특강, 정컴인의 밤, 오픈소스 미니콘서트, 기업체 현장견학, 학사일정, 정컴포커스
- 05 교수 동정** 칼럼 (이도훈 교수)
- 06 학부 동정** IT 이슈, 영화 감상문, 학부생 인터뷰, 외부행사참관기, 신설동아리 소개
- 12 대학원동정** 대학원생 인터뷰

여름호 (통권 제11호) 2015년 6월

발행처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전공 발행인 백운주 발행일 2015. 6.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컴퓨터공학관(201) 6410호 | 051-510-1436 |
홈페이지 <http://cse.pusan.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nucse>
디자인 디자인웍스 | 051-248-1513

정컴 소식

신입생 학부모 초청간담회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청 간담회가 지난 3월 14일 토요일에 개최되었다. 오전에 부산대가 개최하는 행사가 마무리 된 후, 오후 1시 30분경부터 컴퓨터공학관에서 전기정보컴퓨터공학부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부장 백운주 교수(정보컴퓨터공학전공주임), 김종덕 교수, 최윤호 교수와 전기공학전공에 박관수 교수(전기공학전공주임), 이해준 교수, 이호준 교수, 이욱구 교수, 그리고, 신입생 학부모 50여명과 조교가 참석했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백운주 학부장과 함께 신입생들이 공부하게 될 멀티미디어 강의실, 디지털회로실습실, 컴퓨터실습실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6514호로 이동하여 홍보동영상 시청 후 백운주 학부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학부 연혁, 학부 특성화 분야 및 지역산업에 대한 소개와 양 전공 현황을 소개했다. 교수진 및 연구분야, 대학원 연구실 현황, 사업단 및 연구소, 해외 파견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 장학제도, 동아리, 졸업생 진로 및 취업 현황, 동문 현황 등을 소개했고, 학부모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전기컴퓨터공학부로 통합된 첫 해로 전공배정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았고, 졸업 후 진로, 학부 지원 동아리, 수업 과제와 같은 다양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를 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조맹섭 박사 초청특강

지난 2015년 4월 29일, 컴퓨터공학관 6303호에서 조맹섭 박사의 초청특강이 열렸다. 정기동 교수의 소개말에 이어 조맹섭 연사는 정보컴퓨터공학우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위한 프레젠테이션 성공전략에 강의했다.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특히 면접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였으며 많은 학부생들이 참여하였다.

강의에서 크게 첫 번째로는 현재 기업에서 중요시 여기는 인재상에 대한 설명과 대학생으로서 준비해야 하는 덕목, 자질에 대해 말했고, 두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해진 이유부터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술을 말했다. 끝으로 프레젠테이션시의 예절과 사소하지만 효과적인 팁을 알려주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강의가 종료됐다.

한편 연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카이로스 PT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오픈소스 미니콘서트

지난 5월 7일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101호에서 오픈소스 미니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강연의 연사는 삼성전자 손기성 차장으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동향과 오픈소스의 중요성, 대학생들이 왜 오픈소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취지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는 이기준 교수와 조교, 학부생 290여명이



참석하여 강당을 가득 메웠다.

연사는 컴퓨터공학도로서 단순한 코더가 아닌 실력을 있는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소개로 강연을 시작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오픈소스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용하고, 이것을 이용해 어떻게 자신의 실력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들을 설명했다. 또한 오픈소스 이외에도 최신 산업체의 동향에 따른 대학생의 공부 방법과 방향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컴인의 밤

지난 5월 2일 토요일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회가 주최한 2015년도 정컴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5월 3일 일요일까지 1박 2일간에 걸쳐 금정산 오마이랜드에서 진행되었다. 2015년 정컴인의 밤 행사에는 특히 미니게임, 보물찾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돋보였다.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우들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총 110명의 학우가 참여하였으며 이기준 교수, 김종덕 교수, 최윤호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학우들 간 친목도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격려했다.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기업체 현장견학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지난 5월 15일 부산권 선도대학 육성 사업단 주최로 기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해양문화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환경공학전공, 부경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경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본관앞에 집결, 출발하여 10시에 삼성중공업을 견학하고 점심식사 후 대우조선해양을 견학했다.

최근 선박이 전자화 및 IT화 되면서 조선분야에서 선박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ICT기술을 접목하여 선박을 생산하고 있어, 현재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ICT관련 지식이 선박 제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ICT분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

현장견학 - ITRC Fofum 2015

지난 5월 29일 부산권 선도대학 육성 사업단 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는 'ITRC Fofum 2015'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ITRC Forum 2015'는 전국 23개 대학의 30개의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주요 기술 분야별 연구결과물이 전시되는 행사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29일 오전 6시에 부산대학교에서 출발하여 저녁 9시에 부산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16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빅 데이터처리 플랫폼 연구센터(단장:홍봉희교수)와 사물인터넷 ITRC 연구센터(단장:김호원교수)에서도 연구결과물을 전시했다. 빅 데이터처리 플랫폼 연구센터에서는 교통, 기상, 유동인구 등 다양한 빅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예측하는 시스템을 전시했고, 사물인터넷 ITRC 연구센터에서는 TSCH기반 IOT 다바이스/게이트웨이 구축 및 개방형 IOT 플랫폼 기반 다바이스/네트워크 제어·관리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전시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빅데이터/클라우드, 사물통신/사물인터넷, 차세대 반도체/소자, 차세대 이동통신/네트워크, 창의융합, 실감미디어/방송 등을 통한 다양한 IT관련 콘텐츠 생성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학사일정

2015.06.01 ~ 15	제2학기 재입학신청
2015.06.11 ~ 15	여름계절수업 등록금납부
2015.06.12 ~ 18	1학기 기말고사
2015.06.19 ~ 16	여름계절수업
2015.06.19 ~ 19	여름휴가 시작
2015.07.02 ~ 02	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2015.07.13 ~ 28	2학기 국문·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2015.08.03 ~ 10	2학기 휴·복학기간(현금등록전)
2015.08.07 ~ 10	2학기 희망과목담기
2015.08.11 ~ 12	2학기 수강신청
2015.08.14 ~ 17	2학기 수강신청
2015.08.24 ~ 27	2학기 재학생 등록금납부
2015.08.26 ~ 26	2학기 1차 폐강강좌 공고
2015.08.28 ~ 28	후기 학위수여식
2015.09.01 ~ 01	2학기 개강
2015.09.01 ~ 07	2학기 수강정정
2015.09.14 ~ 15	2학기 2차 폐강강좌 공고
2015.09.14 ~ 15	2학기 폐강강좌 수강신청자 수강 정정
2015.09.16 ~ 16	2학기 확정출석부 출력
2015.09.21 ~ 25	전기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2015.09.25 ~ 25	전기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정컴포커스



focus
01

박근혜 대통령 사물인터넷 창의연구센터(센터장 김호원교수) 방문, 연구진 격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6일 부산대「사물인터넷 창의연구센터」를 방문, 부산대의 사물인터넷 연구진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이어,

오후 부산대 과학기술연구동에 자리 잡고 있는「사물인터넷 창의연구센터(IoT)」(센터장 김호원·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 교수)를 직접 찾아 관련 연구성과와 결과물을 시찰하고 청년창업가 및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김기섭 부산대 총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및 관련 교수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방문 행사는 김호원 센터장의 센터 현황과 연구 개요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능형 인지 칩 및 다바이스 연동 시연과 IoT 다바이스 기반 개인 건강증진 서비스 등에 대한 시연이 펼쳐졌으며, 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연구에 대한 비전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앞서 오전 출범식에서 부산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부산 창조경제센터가 전국의 혁신센터 및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 유통, 영화·영상,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 육성과 창업,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산센터가 △부산시 스마트시티 구현 계획과 연계한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육성을 비롯해 △혁신상품 가치 제고와 국내외 시장진출의 관문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원 센터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부산 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등과 잘 연계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하셨다”고 전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와 학생들은 용기를 갖고 더욱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IoT 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17년까지 모두 30억5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디바이스, 플랫폼, 서비스, 분석·예측 관련 기술개발 등을 연구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컴퓨터가 감지한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가 얻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즉 사람이 원하는 바를 직접 사물에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도 그의 행동 패턴을 감지한 후 사물이 알아서 스스로 주변 환경이나 현재 상황을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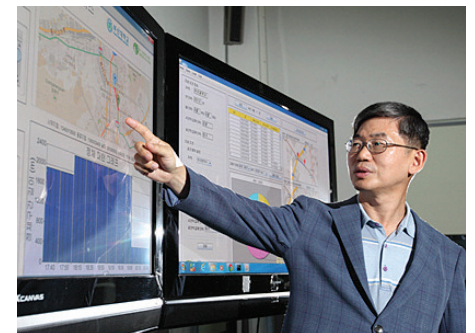
홈페이지나 TV·스마트폰 앱을 통해 날씨와 기온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그쳤다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면 서울에 출장가려는 나의 일정과 기상청의 정보가 연동이 돼 ‘서울에 도착하면 비가 올 예정이니 우산을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소통하는 새로운 세계와 분야를 연구한다.

focus 02

홍봉희 교수, 기상 빅데이터 분석 공로 환경부장관 표창

홍봉희 교수(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가 기상 빅데이터 분석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산대 빅데이터처리플랫폼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홍봉희 교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상정보 분석 서비스를 개발한 공로로 2015년 세계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을 맞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홍 교수가 개발한 기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서울 지역의 기상 정보에 따라 전국 각 해수욕장의 유동 인구, 교통 혼잡, 숙박 혼잡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수욕장의 유동 인구 예측에 있어 서울 지역 및 해당 해수욕장의 기상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선보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해온 빅데이터처리플랫폼연구센터는 2012년 6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이 분야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 홍봉희 교수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focus 03

최원영, 김성현 학생, 전국 슈퍼컴퓨팅 프로그래밍 대회 입상 수상



본 학부 최원영 학생(09학번), 김성현 학생(12학번)은 KISTI(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주최한 슈퍼컴퓨팅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슈퍼컴퓨팅 대회는 병렬컴퓨팅인 openmp와 mpi를 사용하여 빠른 계산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겨루는 대회이다.

focus 04

최원영, 김성현, 배선우 학생, 2014 제1회 ICT분야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본 학부 최원영 학생(09학번), 김성현 학생(12학번), 배선우 학생(13학번)은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최하고, 스마트창작터에서 주최한 “2014 제1회

ICT분야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팀이 출품한 “스마트 보이스 서비스”는 웨어러블형태의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고 웹에 파일을 올리게 되면 해당 녹음파일을 DB화 시켜 음성으로 검색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focus 05 최원영 학생, IoT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수상



본 학부 2학년 최원영 학생(09학번)은 융인시디지탈 산업진흥원 주최, 미래부 후원의 "IoT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 코알라루브먼트 창업동아리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팀이 출품한 "스마트 피쉬 케어 서비스"는 IoT기기를 어항에 부착하여 관상어를 언제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focus 06 코알라루브먼트, 창업동아리 IR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부 학생은 총 4명(최원영, 박재원, 김성현, 배선우)이다. 창업동아리 IR경진대회는 총 5개 대학의 창업동아리들의 실적과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서 코알라루브먼트 팀은 '스마트 피쉬 케어 서비스'를 출품하였다. "스마트 피쉬 케어 서비스"는 IoT기기를 어항에 부착하여 관상어를 언제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부산대학교 창업동아리 '코알라루브먼트'팀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창업동아리 IR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창업동아리 '코알라루브먼트'팀은 총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정보컴퓨터공

focus 07 안영민 대학원생, 2014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실 (Software Engineering Lab.) 소속의 대학원생 안영민 (석사과정 14 학번) 씨가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주최한 『2014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에서 소프트웨어공학 부문의 우수발표 논문으로 선정되어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지도교수 : 염근혁).

2014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 일시 : 2014년 6월 25일 (수) - 27일 (금)
- 장소 : 부경대학교 & 해운대그랜드호텔
- 주관 : 한국정보과학회 (<http://www.kiise.or.kr>)

논문

- 제목 :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를 위한 가변성 기반의 서비스 분석 모델
- 저자 : 안영민, 박준석, 염근혁 (부산대)

focus 08 강태준 대학원생, 2014추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실 (Software Engineering Lab.) 소속의 대학원생 강태준 (석사과정 13 학번) 씨가 한국정보처리학회에서 주최한 『2014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지도교수 : 염근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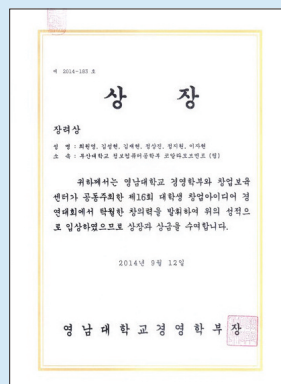
2014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시 : 2014년 11월 7일 (금) - 8일 (토)
- 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 주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http://www.kips.or.kr>), 부산외국어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부

논문

- 제목 : 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를 위한 AHP 기반의 기능적 요구사항 분석 방법
- 저자 : 강태준, 박준석, 염근혁 (부산대)

focus 09 최원영, 김성현, 김재현, 정상진, 정지원, 이자현 학생, '제 16회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본 학부 최원영 학생 (09학번), 김성현, 김재현, 정상진, 정지원, 이자현 학생은 영남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제 16회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동아리 검색 웹/앱 서비스"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팀이 출품한 "동아리 검색 웹/앱 서비스"는 웹/앱에서 대학교의 동아리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본 학부 최원영 학생 (09학번), 김성현, 김재현, 정상진, 정지원, 이자현 학생은 영남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제 16회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동아리

focus 10 최원영, 김성현 학생, 부산대학교 슈퍼컴퓨팅 프로그래밍 대회 대상 수상



* 왼쪽에서 네번째 김성현 학생, 왼쪽에서 여섯번째 최원영학생

본 학부 최원영 학생 (09학번), 김성현 학생 (12학번)은 부산대학교 슈퍼컴퓨팅 연구실에서 주최한 슈퍼컴퓨팅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슈퍼컴퓨팅 대회는 병렬컴퓨팅인 openmp와 mpi를 사용하여 빠른 계산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겨루는 대회이다.

가지 않은 길

[칼럼] 이도훈 교수

검색창에서 낙남정맥, 무량산, 학남산을 입력하면, 주저리 주저리 나열되는 글뭉치는 대부분 산행에 관한 것들이다. 그곳에 등장하는 봉산마을 혹은 어실이라는 곳은 낙남정맥에 접하고 무량산과 학남산을 정점으로 하는 원을 그릴 때 중앙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필자가 태어나고 중학교 때까지 자란 곳이다. 사대부가가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저물어가는 전형이 우리집안에서 일어났고 12대 종손이던 아버지가 반환점으로 삼고자 했던 곳이기도 했다. 김해 허씨 집성촌이었던 갈천마을의 번두리 부락이었다. 지금은 낙남정맥과 만나는 큰 재를 넘는 포장된 신작로가 나고, 저수지가 생겨서 아침저녁으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낚시꾼들이 찾아오고 시인이 찾아들 만큼 운치 있는 곳으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낙남정맥이 지나면서 등산코스가 생겨 등산객들에게 제법 알려져 마을이 되었다.

하지만 필자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읍내 장에 가서 어디서 왔다고 하면 오지에서 내려온 상촌놈으로 여겼다. 오지지수를 도심에서의 유클리드길이, 맨허튼길이, 교통접근성과의 관계로 본다면 충분히 그럴 만 했다. 읍내와 마을까지의 유클리드길이는 어느 동네보다 가까웠다. 그러나 길이 있는 길이 즉 맨허튼길이는 유클리드길이의 서너 배가 되었다. 읍내와 마을 사이에 동북에서 남서로 가로 놓인 낙남정맥 탓이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어서 읍내까지 산을 넘어 30리 길을 걸어다니거나 하루에 차가 서너 번 다니는 신작로까지 10리를 걸어가야 했다. 그러한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오지지수를 계산해보면 단연코 군내 최고점이 나왔을 것 같다. 군내 사람들이 최고의 오지로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본다.

어린 시절 후배들이 필자를 만나면 그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부모의 고향이 시골이면서 시골출신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의심을 그들로부터 받기도 했다. 뒤돌아 보면, 그런 껍질에서 컴퓨터공학을 하고 있는 필자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두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3학년 시절, 담임이던 국어선생님과 고등학교 시절, 이름도 모르는 어느 선배와의 짧은 만남이었다.

대부분 70년대 우리나라 형편이 공업입국이라는 경제논리가 지배하고 있었고 농촌의 학생들을 공고로 진학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지금의 마스터고처럼 대단한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과장된 분위기 속에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앞 다투어



투어 기계공고로 진학하였다. 필자도 자연스레 그런 시류에 동승하여 지원서를 내었고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한탄을 하면서 일장 훈시를 했다. '왜 공고를 가느냐? 차라리 인근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면서기를 하는 것이 훨씬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부모님 봉양하고 흠을 만지며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삶이 훨씬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이다.'라며 열변을 토했다. 마치 목욕에서 고개를 들어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왜 그렇게 공감에 갔는지 몰랐다. 살면서 인간답게 산다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선생님이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면서 특차 공고 원서 한 장을 없었다고 다른 선생님께 눈치 아닌 눈치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고등학생이었던 어느 날,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이 반을 나누어 전공 설명회를 했다. 우리 반에 들어온 선배들이 여러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중에서 계산 통계를 전공한다는 선배가 전략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매우 흥미로웠다. 전공이라야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등 일부 전통적 공학 밖에 모르던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남기고 간 것이었다. 그 당시 들도 보도 못한 신생 학문 분야를 단 몇 분만의 소개임에도 뇌리에 깊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동창들이 계산통계학이나 전산학이라는 학과로 진학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마지막 두 연은 소개한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아직
발자국에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
습다.

먼저 길은 다른 날로 미루리라 생각했습니다.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뀐
것입니다” 라고

그랬다. 고등학교와 대학이라는 선택에서 두 갈래 혹은 여러 갈래의 길에서 다시 되돌아
가기엔 너무 먼 길을 선택하여 걸어 왔다.

어릴 때, '넌 뭐가 될래?' 하고 물으면, 국회의
원, 판검사, 대기업 취업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진로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그런데 시절을 앞서 걸었던 사람이 던져준 몇 마디 말
덕분에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길은 시인
이 말했듯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덜 다니는 한적한
길이였다. 그런데 그 길에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기 시작했고 다른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동경하기도 하고 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순간 선택과 선택으로 이어진 그 길은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선두에 있었다. 진화하는 세상과
함께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길의 중심에는
계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라는 것이
있고 공학과 과학 뿐 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요구
되는 기본 소양이 되었다. 컴퓨터학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즐거움을 주는 분야이다. 그것을
위해 요구하는 피곤함이나 고단함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아주 오래된 그 시절에 '가지 않았던 길을 갔더라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영양가 없는 생각
을 가끔 해본다. 시인의 말처럼 '한숨 쉬며' '가지 않
은 길'에 대하여, 바뀐 인생에 대하여 고개를 들어
보이지 않을 그 길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
를 일이다.

이도훈 교수

E-mail : dohoon@pusan.ac.kr



컴퓨터 공학도의 시선으로 바라본 애플워치



미국의 IT공룡, 애플이 지난해 9월 아이폰6와 함께 애플워치를 공개한 후 삼성, 사오미등의 일부 기업들만 진출해 있던 웨어러블 시장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흥미로워졌다. 스마트폰이 출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삶에 일부분으로 녹아든 2010년대에 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웨어러블 기기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애플사가 내딛은 웨어러블 기기로의 첫걸음, 애플워치에 대한 정보는 기사와 포스팅 등에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닌 컴퓨터 공학도로서 평가를 내려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크게 디자인과 기능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먼저 그 디자인으로 보았을 때 애플이 아직 우리는 아날로그적 감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것 같다. 처음부터 감성적 기기로 마케팅을 해왔던 애플답게 터치스크린만을 사용하지 않고 우측부에 휠버튼을 탑재하였다. 휠과 버튼이 필수불가결적으로 필요했다기 보다는 오랜시간 시장을 지배해왔던 쿼츠시계의 부품을 디지털제품에 부착하는 것으로써 친근감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계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부터 메탈까지 다양한 시계줄을 별도 구성하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성에 맞게 디자인적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애플워치를 스마트폰관련 제품군이 아닌 시계의 제품군으로 편입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실제로 애플워치의 가격은 4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로 고급 기종의 경우 그 가격대가 일반적인 스마트기기의 것이 아니라 고급 시계군의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기기 시장을 스마트기기로서의 새로운 가치가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시장의 가치로 접근하려는 애플의 태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디자인의 우선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기능이나 하드웨어적 혁신만큼이나 디자인이 중요해졌다. 이번 애플워치는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거부감없이 안착시키는데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두번째로 기능을 보자. 애플워치의 소개된 기능은 먼저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기어와 크게 차별화된 기능은 없어보인다. 전화와 메시지, 헬스케어기능과 몇가지 어플리케이션의 탑재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무선충전이다. 고급 시계군에는 빠지지 않는 방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마저도 마그네틱을 이용한 충전기를 시계 후면에 부착하고 자기유도방식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전하려면 제품을 손목에서 풀어야만 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로는 자기공명방식 무선충전이 있다. 자기장을 주파수로 변환시켜 방출하는 방식으로 충전기 근처로 가면 충전패드에 얹을 필요없이 충전이 되는 편리한 방식으로 애플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용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무선충전 관련주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무선충전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빈약한 어플리케이션 부문은 역시 앱스토어라는 오픈마켓을 통한 사용자들의 자체개발에 맡기고 있다. 애플워치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앱 개발 또한 이뤄지리라 생각된다. 컴퓨터 공학도로서는 또 하나의 시장이 생겨난 셈이다. 또한 사용빈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받던 Siri기능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워치의 조그마한 스크린으로는 입력하기 불편했던 것들을 음성인식 기술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추후에는 Siri와 연계되어 작동하게 될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상상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기기는 IOT(Internet Of Things)의 일부분 볼 수 있다. 매일 입고 다니는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기능들을 추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IOT세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웨어러블 시장의 첫걸음인 스마트워치의 출현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을 지나 이미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막 출발한 따끈따끈한 시장 속에서 자유로이 펼쳐나갈 학우들의 꿈과 열정이 기대된다.

컴퓨터 공학도의 시선으로 바라본 갤럭시S6



지난 2015년 3월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obile World Congress에서 열린 삼성의 언팩 2015에서 최초 공개되었던 갤럭시 S6가 4월 10일 국내에 정식 출시되었다. 애플의 아이폰6와 함께 하이엔드 모바일 기기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자처하고 있는 삼성의 플래그쉽 모델인 만큼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는 삼성인 만큼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갤럭시S6에 대하여 분석해보자.

먼저 디자인적인 측면을 보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갤럭시S3,4모델이 애플의 문턱까지 쫓아갔던 34%에 비해 갤럭시S5에서 16~17%로 떨어지며 부진했던 것이 삼성에게 다음 모델을 내놓는 데 부담이 될 거라는 예상이 적중한 것인지 이번 S6모델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한눈에도 차별화에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고수하던 배터리 탈착형에서 일체형 배터리로 전향하는 과감한 결정을 하면서 메탈소재와 함께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했다. 변화한 디자인은 플라스틱소재의 이전 작에 비해 고급스럽고 유려하며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유독 디자인에 크게 신경 쓴 것은 중국을 필두로 한 저가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가 고사양화 되면서 이제껏 경쟁제품에 비해 우월한 하드웨어와 비교적 무난한 디자인으로 포커스를 가져가던 삼성의 전략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공적인 디자인 변화에 화이트 펄, 블랙 사파이어, 골드 플래티넘, 블루 토파즈로 구성된 다양한 색상을 채택하여 고급스런 기기에 사용자의 개성까지 추가할 수 있는 플래그쉽 모델로서의 차별화를 이루려는 모습이다.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다음으로 기능을 보자.

전작의 5.1인치에서 거의 변화 없는 5.09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고 후면카메라도 동일한 1600만 화소를 채택하여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에는 새로운 QHD 슈퍼 아몰레드를 사용하였고 카메라도 조리개 F1.9값을 지원하여 성능적인 발전이 있었다. 램은 3GB로 전작에 비해 1GB증가했고 2.5Ghz쿼드코어에서 고전력 2.1Ghz쿼드코어와 저전력 1.5Ghz쿼드코어를 동시에 탑재한 옥타코어 CPU를 채택하여 눈에 띄는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S3 시리즈부터 쓰이던 퀄컴사의 스냅 드래곤이 아닌 삼성전자 자체 모바일 프로세서인 엑시노스를 채택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엑시노스가 모바일 프로세서 가운데 최초로 14나노 핀펫 공정으로 제작되어 발열이 줄어드는 등 충분한 발전으로 더 이상 스냅 드래곤에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비춰지는 대목이다. 또한 배터리 일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무선 충전방식을 탑재하였다. 기존의 무선 충전방식이 완충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갤럭시S6의 방식은 충전 10분으로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호평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추가도 눈에 띈다. 모바일 보안 플랫폼으로 들고나온 'KNOX'는 스마트 기기의 하드웨어, 운영체제, 앱 등 각 계층별로 최적화된 보안기능을 제공하고 기업 업무에 활용 가능한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탑재했다. 또한 애플의 모바일 결제기능인 '애플페이'와 같은 맥락으로 '삼성 페이'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NFC(Near Field Communication)방식 뿐만 아니라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과 바코드 방식도 지원한다.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라고 불리는 MST를 이용하면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 리더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매장에서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삼성 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삼성전자의 갤럭시S6의 변화와 세계시장의 동향으로 보았을 때 하드웨어적 혁신의 부분에서는 한계치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고치까지의 해상도(ppi)와 충분한 성능을 뽑아내는 모바일 프로세서 등 하드웨어적으로 월등한 격차가 나지 않는 기기들이 시장에 뿌려지고 있다. 이에 삼성이 스마트폰시장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결국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에서의 차별화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리즈를 거듭하다 보면 보안플랫폼과 모바일 결제기능 등의 추가기능으로만 승부를 걸 수는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삼성이 현재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인 타이젠에 지속적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변화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 컴퓨터공학도로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지에 대한 신중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용욱(정보컴퓨터공학 12) E-mail : ywha12@gmail.com

영화 감상문 | '이미테이션 게임'

12학번 하용욱

새 학기가 시작되고 오랜만에 들어온 강의실엔 뜻 깊은 방학을 보내고 돌아온 친구들이 열정으로 저마다 각오를 다지며 공부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나 또한 길었던 방학으로 재충전하여 첫 수업을 진행하려 들어오신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이틀날까지 수업을 듣다보니 여러 교수님들께서 특이하게도 한 영화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였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인가의 추가적인 언급 이후에야 뒤늦게 이 영화를 감상하게 되었다.



영화의 אניגמה 생성기

영화의 내용은 앨런 튜링이라는 실존인물이 비밀단체에 소속되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사용하던 암호체계 '아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최초의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군이 만들어낸 אני그마는 회전자들을 사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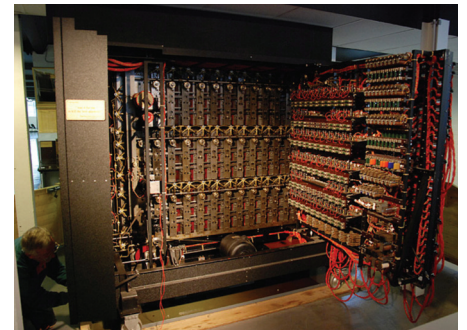
알파벳을 연속적으로 변환하여 암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암호기가 없이는 해독불가능한 것으로 그 악명이 높았다. 라디오 송신으로 암호를 주고받던 당시에는 AM라디오 수신기만 있으면 누구든 그 암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누구도 이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 전쟁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회전자의 개수에 따라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5개의 회전자들을 쓰는 경우에 159×10^{18} 개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인력으로 이를 모두 체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앨런 튜링이 고안해낸 장치가 바로 Bombe(영화에서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으로 등장)이다. 이 Bombe는 전자 기계식 계산기로써 이진법기반의 디지털 컴퓨터개발에 실마리를 제공한 발명품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Bombe의 발명으로 독일군의 אני그마를 해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Bombe 이후로도 앨런 튜링은 Colossus라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식 컴퓨터를 고안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가까운 장치를 개발하는 등 컴퓨터개발에 전념했다.

하지만 이후 당시에 용납되지 않던 동성애자로서 불운한 여생을 보내던 앨런 튜링은 41세의 나이로 자살하게 되는데 이때 튜링이 사과에 청산가리를 넣어 베어 물었고, 이에 영감을 얻은 스티브 잡스가 후에 애플사의 로고로 한입 베어 문 사과를 사용하였다는 설이 있다.

영화를 보고나서 방 하나가 가득 차던 크기의 터무니



실제 브레츨리 파크 박물관에 전시된 Bombe의 복각품

없이 거대한 전자계산기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한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니 눈앞이 까마득해졌다. אני그마 같이 순수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닥쳤을 때, 자존심을 접어두고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했던 용기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불가능을 극복하겠다는 집념으로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장치를 고안해내는 열정을 불태운 앨런 튜링을 보면서 나 스스로는 과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열과 의지를 준비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고, 동시에 앞서 세상을 변화시킨 그들의 청춘을 바치는 노력과 희생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였다.

하용욱(정보컴퓨터공학 12)

E-mail : ywha12@gmail.com

학부생 인터뷰 | 하나둘셋넷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이제껏 인터뷰 해왔던 특별한 학우가 아닌 현 정보컴퓨터공학부의 평범한 학우들을 만나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각 학년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학우들에게 현재 학부생활과 그들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 또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부분을 인터뷰하여 서로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보았다. 평범한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우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을만한 주제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학년 인터뷰



임준영(15학번) 박재환(15학번)

Q. 전기정보컴퓨터공학부 지원 동기는?

임준영(15학번) : 평소에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어서 혼자 쉬운 컴퓨터언어를 공부하다가 대학진학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컴퓨터공학으로 전공을 선택했어요.

박재환(15학번) : 저는 이전부터 컴퓨터쪽으로 진학하고 싶었어요. 과를 미리 정해놓아서 여러학교의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했고, 부산대에 합격해서 이곳으로 오게되었어요. 부산 대학교에 오게되어 기뻐요.

Q. 입학 전 꿈꾸던 대학생활과 현재 경험하는 대학생활의 차이가 있는지?

임준영 : 낭만적이고 활기넘치는 대학생활을 꿈꿔왔었는데 강의, 과제, 시험까지 다들 빠른속도로 앞서나가기 쫓아가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대학생활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것대로 보람이 있고 의미있는 생활인 것 같아요.

박재환 :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학업적인 차이가 있다면 고등학교 때는 중구난방으로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서는 전공에 대한 집중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을 꼽고 싶어요. 불필요한 과목들은 안 배우고 흥미 있는 과목들을 심도 깊게 배우는 것이 멋진 것 같아요.

Q. 앞으로 있을 대학 생활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임준영 : 조금 바쁘다곤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하게될 회사생활에 비할 수 없는 여유로운 생활이 바로 대학생활 아니겠어요? 짬짬이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박재환 : 저는 이 전공에서 실력을 키워서 적당한 학점만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공적 지식을 잘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부차적 목표예요. 지금도 좋은 경험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Q. 현재 고민은?

임준영 : 저희가 1학년 때 과를 정하면서 애들이 나뉘게 되는데 친한 애들이랑 나뉘게 되는 게 걱정이에요.. 아직은 같은 학부생이지만 곧 다른 학과생이 될거라는 불안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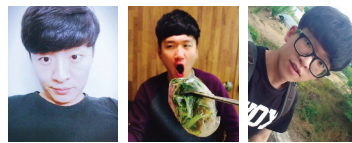
박재환 : 저는 시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새내기라 이것저것 하고 싶은게 많은데 그러다보니 조금 빠듯하네요. 또 연애도 신경 쓰이지만 일단은 돈 걱정이 현재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보다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통장 잔고가 점점 비어가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어요.

Q. 꿈이 있다면?

임준영 :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졸업 후에 다른 분야와 컴퓨터, IT를 융합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멋진 것 같지 않나요?

박재환 : IT분야에 종사하면서 사람들에게 편리한 도구들을 개발해보고 싶어요. 가령 예를들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씩은 들고다니는 휴대폰 같은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2학년 인터뷰



이동혁(12학번) 유주영(12학번) 이호용(12학번)

Q. 1학년과 달라진 점?

이동혁(12학번) :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군 제대 후엔 뭔가 나이먹었다는 생각도 확실하듯 학교에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다닐 수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주영(12학번) : 맞아요. 일단 2학년은 1학년과 다르게 모두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들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호용(12학번) : 2학년이 되니까 1학년 때의 한량했던 생활이 아쉽게 느껴지고 앞으로 3년밖에 안남았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공부해야겠다는 강박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업을 대하는 자세가 1학년과 2학년의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Q. 현재의 고민?

이동혁 : 음... 저는 취직걱정이 먼저 들어요.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보다는 회사생활에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요즘 자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유로운 성격이라 어디에 얽매어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일하는 것엔 자신이 없거든요.

유주영 : 저는 일단 아직 2학년이라서 취업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고 당장의 공부가 고민이라면 고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군대 갔다 와서 머리가 많이 굳은 느낌이기도요..

Q. 정보컴퓨터공학부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때?

이동혁 : 노트북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게 좋은 것 같아요. 무거운 장비도 필요없고 꼭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면 우리가 제일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유주영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한 것들을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호용 : 저희과는 특정한 진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잘 맞는지 스스로 생각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Q. 1학년의 고민 중에 연애고민과 너무 바빠서 시간관리가 안된다는 고민에 대한 선배의 조언?

이동혁 : 연애는.. 저도 실패해서 어떻게 조언해드릴 수가 없어 안타깝네요.

시간관리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학년은 새로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일테지만 쪼개고 쪼개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선택과 집중은 그이후에 해도 될거라고 생각해요. 시간관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내시길 바라요.

유주영 : 연애는 동아리활동이나 기타 대외활동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대생이라고해서 연애를 전혀 못할 건 아니니까, 또 아직 학기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시간관리 부분은 동혁이와 같은 생각이예요. 많은 경험을 한단 생각으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호용 : 연애는 불가능해요. 그냥 공부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연애는 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1학년 때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쪼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놀아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3학년 인터뷰



김현일(11학번) 박서현(11학번)

Q. 3학년이 되어서 느끼는 1,2학년때와는 달라진 점?

김현일(11학번) : 1,2학년때와는 달리 취업에 대한 걱정이 훨씬 많아졌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그에맞게 정보도 알아보고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박서현(11학번) : 취업걱정이 늘다보니 학점만 잘 따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늘었어요. 1,2학년때 딱히 해놓은 대외활동이 없는 점도 걱정이에요.

Q. 정보컴퓨터공학부 지원 동기와 현재 학부생활 소개

김현일 : 처음에는 컴퓨터를 전공으로 한다는 것 보단 어렵게 할 때 커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막대한 동경이 학과에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현재는 학과 수업에 충실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박서현 : 저는 항상 제 창의력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여러 학과를 탐색하던 중에 컴퓨터공학이 제가 원하는 바에 정확히 부합하는 학문임을 알게 되어 주저 없이 선택했어요.

Q. 현재의 고민?

김현일 : 연애도 고민 중에 하나예요. 선배를 비롯한 형들은 대학 때 여자친구를 많이 만나보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공부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바빠서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거기다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정말 큰 고민이에요.

박서현 : 휴학을 길게 하다 보니 친구들은 취업전선이고 저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비와 용돈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크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3학년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Q. 2학년들의 인터뷰 때 나온 고민 중에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에 대한 압박이 느껴진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선배로서의 조언은?

김현일 : 제가 2학년 때 잘못했지만 그래도 말해주자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학년이면 동아리나 다른 대외활동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서현 : 사실 대학생활에서 술과 잠을 줄이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건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정말 안나온다면 적성에 안맞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엔 전과를 추천해요. 저는 열심히 안 해서 못했거든요.

Q. 4학년 선배들에게 질문하거나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김현일 : 4학년 선배들에게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3학년의 생활이 어떤지 묻고 싶어요. 아무래도 3학년을 지나셨고 전부 해보셨으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점을 물으면 어느

누구한테 보다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같아요.

박서현 :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흔히 3학년이 전공에 대한 깊은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들 하잖아요? 물론 모든 과목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과목이나 경험하길 추천하는 분야가 있다면 조언 듣고 싶어요.

4학년 인터뷰

오진록(12학번)



김지현(12학번)

Q. 4학년이 되어서 느끼는 1,2학년 때와는 달라진 점?

오진록(12학번) : 부담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전 학년에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이제는 취업이라는 현실이 코앞으로 오면서 어떠한 새로운 활동은 물론이고 기존에 지속하던 활동에 대한 재고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업적인 부분으로는 1, 2학년때 배우던 과목들이 3학년때 조금씩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하더니 4학년에 배우는 과목들은 이전에 배운 요소들이 결합되어 드디어 '컴퓨터공학'을 배우는 느낌이 들어서 신나게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지현(12학번) : 맞아요. 이제 전체적인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을 대부분 수료하면서 컴퓨터란 학문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4학년으로서 취업준비에 생활의 무게가 기우니깐 이것저것 할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영어성적도 만들어야 하고 자격증도 따라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하니 많이 바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 후회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Q. 학부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현재 학부생활 소개.

오진록 : 저희 형이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고등학생 때 형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컴퓨터 공학의 장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줘서 학과를 선택할 때 많이 참고로 했었습니다. 컴퓨터공학 과에 가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학과 공부와 생활도 재미있게 하고 있고 ROTC에 지원하여 현재 4학년을 낭만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지현 : 저는 사실 컴퓨터공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없이 학과에 지원했었어요. 구체적인 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학년을 거듭 할수록 전공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재미가 붙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덧 4학년이네요. 요즘은 마지막 대학생활 최대한 즐기다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현재의 고민?

오진록 : 저는 ROTC를 하고 있어서 취업각정을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군단으로 졸업 뒤 병역을 마치고 왔을 때 전공 지식이 맞았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연애를 할 때 만날 때는 좋은 시간이지만 과제를 하거나 제 일을 할 때 뺏기게 되는 시간이 꽤 부담스럽다고 느껴서 그것도 고민이에요. 여자 친구는 좋은데 연애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김지현 : 저는 개인적으로 큰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취업문제는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랄 것까진 없고 굳이 꼽자면 곧 대학생활이 끝나게 될 거라는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Q. 3학년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전공과목 중 특히 중요한 과목이나 공부 방향등을 조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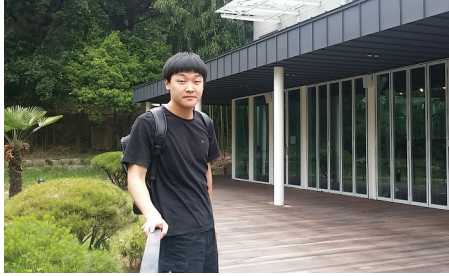
오진록 : 먼저 전공 과목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전공들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컴퓨터공학'이 되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고 꼽을만한 과목은 없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뽑자면 운영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영체제 과목을 수강하시다 보면 느껴지겠지만 다른 과목들의 개념이 모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지현 :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더라도 앞으로의 길은 다양해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일찍부터 시작하면 어떤 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길을 가든 간에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열심히 듣고, 지식을 습득해야 그쪽 분야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학과 공부는 바리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인텔 IOT 세미나

12학번 하현승



지난 2015. 4. 7(화) 16:00에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동 203호에서 인텔, 수상에스티, 부산대학교 동남권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창의인재양성 사업단(CK-1) 등이 주최하는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관한 세미나를 들었다. 총 세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했다.

1차에서 팩토리에 적용된 인텔의 기술사례연구를 인텔코리아 박종섭 이사님이 발표 했다. 발표에서 박종섭 이사님은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사물인터넷(IOT)에 관해서 설명했다. 사물 인터넷은 스스로 말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장치이며 이러

한 것들이 공장의 처리과정을 간소화 하고 원가절약을 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IOT모델을 만드는 것과 그것으로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해내는 것이 목표이며 결국 IT와 장치를 성공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부산대학교 김호원 교수님이 발표했다. 지금의 사물인터넷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사물인터넷 체계가 너무 수직화 되어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여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자동차, 병원, 공장 등 사회구성 장치들이 제각각 구동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지나 공통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공통화 시키고 더욱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관리측면이나 보안 또는 개발자 툴 등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더욱 효율적으로 사물인터넷의 기술들을 변환시켜서 기업들이 더욱 이런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보안이 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들이 융합되었을 때 해킹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IOT 개발키트 및 생태계 구축에 관해서 수상에스티 박정환 본부장님이 발표를 했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도구는 예를 들면 염분을 먹은 양을 체크하는 등 이런 것들을 적용해나가는 중인데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로 결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기술이다. 대신에 작은 정보로도 그것으로 얻어지는 정보들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어느정도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엄청난 경쟁력 있는 사업이고 "Thing + data = value" 곧 소득성장, 비용감소로 인해 마진의 증대로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IT와 장치의 융합이 요즘 중요한 화두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도움이 되었고 이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때 들은 보안 관련 이야기와 IT시장관련 이야기도 꽤나 도움이 되었다. 또한 마지막에 열린 경품 추첨도 이번 세미나의 재미를 돋우는 기분 좋은 이벤트였던 것 같다.

CSE

신설 동아리 소개



코알라무브먼트



1. 어떤 동아리인가요?

코알라무브먼트는 IT융합 창업동아리로서 최신IT기술을 습득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발상을 통해 실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창조, 실현 해내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코알라무브먼트는 코드+알고리즘+라이프의 앞글자과 역동성을 뜻하는 무브먼트를 더해서 만든 이름으로서 IT융합기술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뜻에서만 들었습니다. 동아리원들이 개발한 여러 IT융합기술이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 기술특허를 통한 사업화까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동아리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코알라무브먼트동아리는 제도관1층 옆에 동아리방이 위치해 있어서 제도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iMac), 모니터, 각종 하드웨어기들, 3D프린터 등 이 구비되어 있어 IT 융합 제품개발에 특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올해의 계획?

상반기는 해양CT분야 사업을 통해 해양CT관련 기술을 개발 및 습득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Samsung Software Friendship 등에 지원하여 다른 대학의 여러 동아리들과의 교류, 해외탐방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넓히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임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체험, 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신입회원이 하게되는 활동?

신입회원은 제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설계부터 시작하여 공부를 하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설계 및 개발을 통해 공모전 등에서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업에 관심이 있는 신입회원인 경우 창업지원사업 소개 및 창업한 선배들로 부터의 조언 등을 받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동아리에 들어갈 자격요건?

IT융합기술에 관심이 많거나 창업에 관심있다면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활동현황

- 2014년 3월 : 코알라무브먼트 IT융합 창업동아리 설립
6월 : 융인디지털산업진흥원 IoT공모전 장려상
9월 : 3D프린터 및 연구장비 구축
슈퍼컴퓨팅 프로그래밍 대회(부산대) - 대상
슈퍼컴퓨팅 프로그래밍 전국대회(미래부) - 입상
대학생창업아이디어 공모전(영남대) - 장려상
대학생 모바일 앱 공모전(교육부) - 최우수상
사상구 장애인복지관공모전대상 상금 100만원 7부후원
11월 : 코엑스 국제 IoT전시회 전시
ICT분야 창업아이디어 공모전(동의대) - 최우수상
2015년 1월 : 코알라무브먼트 워크샵(하이원)
2월 : 부산상공회의소 창업동아리 IR대회 최우수상
3월 :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IoT기술동아리 선정
4월 : 해양CT프로젝트 진행 중

동아리장 : 09 최원영 모임시간 : 비정기모임
홈페이지 : <http://coala.me> 회 원 수 : 14명

APPTIVE



1. 어떤 동아리인가요?

APPTIVE는 App + Creative의 합성어로 창의적인 앱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2013년 애플리케이션 동아리로 시작하여 어플리케이션 창업동아리로 발전하였습니다.

2. 동아리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인 친목동아리나 학술동아리와는 다르게 정말 활동적인 동아리입니다. 갈매기 창업사관학교, 공모전, 지원사업 등 기타 외부적인 교류와 기회가 많은 동아리입니다. 무엇보다 기획, 디자인, 개발 부분에 분업화된 체계로 완성도 높은 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3. 올해의 계획?

올해 초 갈매기SW창업사관학교 1기를 수료하였고, 현재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서포터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프로젝트 5개 팀은 외부 공모전 또는 지원사업과 함께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4. 신입회원이 하게 되는 활동

신입회원들은 먼저 신입회원끼리 팀을 짜서 간단한 앱을 만드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과제평가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상금을 지원합니다. 그 후에는 기존의 회원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5. 동아리에 들어갈 자격요건?

개발자와 디자인을 제외하고 기획은 전공불문입니다. 디자인은 시각디자인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선발 시 앱 제작 경험이 없는 1학년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

2013 04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동아리 2팀 선정 및 지원

2014 01 동남권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02 부산대학교 우수창업동아리 최우수상 수상

04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동아리 선정 및 지원

08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종창업아이템 선정

09 대경동남권 창업지략 창의우수상

10 산학 EXPO 멘토 선정 우수 전신팀 선정

10 단디벤처포럼 기업IR발표(intolaw아이템)

11 부산대학교 idea start-up 경진대회 금상

12 전국 천하제일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1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갈매기 창업사관학교 동아리내 2팀 선정

2015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서포터즈 동아리 선정

부산대학교 우수창업동아리 장려상 수상

장영실 SW벤처포럼 기업IR 경진대회 최우수상 (intolaw아이템)

부산산업진흥원 갈매기 창업사관학교 2팀 7명 우수 수료

동아리장 : 09 임재현

모임시간 : 금요일 오후 7시

홈페이지 : <http://apptive.kr> 회 원 수 : 30명

AICall



1. 어떤 동아리인가요?

Algorithm is core all. 즉 알고리즘 학술 동아리입니다. 2015년 1월에 창단된 동아리로, 매년 있는 ACM-ICPC 대회의 준비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세미나, 온라인저지

문제풀이, 교수님 평가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 동아리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지도교수님께서 ICPC 문제 출제위원이시고, 매달 1번씩 교수님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시어 자체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학습과 실전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올해의 계획?

매주 세미나는 물론, 매달 1회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코드잼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ACM-ICPC대회에 참가 예정입니다. 방학때는 합숙

워크샵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4. 신입회원이 하게되는 활동?

TopCoder의 튜토리얼을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학습함과 동시에 세미나 및 온라인 저지 문제풀이를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5. 동아리에 들어갈 자격요건?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2학년 교과과정인 C++/자료구조 정도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동아리장 : 09 표중선

모임시간 : 일요일 오전 10시

회 원 수 : 10명

PPD



1. 어떤 동아리인가요?

작년 스터디그룹에서 발전되어 2015년 1월에 창단되어 4월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과동아리입니다. HTML5, Node.js 등 웹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공모전,

대외활동 등 공통된 목표를 두어 동아리 내에서 팀 단위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터디의 경우 관심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주중 2번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동아리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신생 동아리이기 때문에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웹 개발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2학년들에게는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올해의 계획?

학기 중부터 공모전 대비 스터디를 하여 여름방학때 공모전에 참가 및 집중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원이 동의하는 대외활동이 있다면 참가할 생각입니다.

4. 신입회원이 하게 되는 활동

신입회원들은 자바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해 배우고 여름 방학때 실질적인 팀을 구성하여 공모전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5. 동아리에 들어갈 자격요건?

2학년이상 주 2회 정기 모임에 빠지지 않고 같이 코딩하며 어울릴 분이면 상관없습니다.

동아리장 : 12 윤준상

모임시간 : 매주 수요일 19시, 금요일 14시 (약 2시간)

회 원 수 : 10명

대학원생 인터뷰



박사 09학번 김민호

Q.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권혁철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실의 김민호입니다. 현재 박사과정(09학번) 재학 중입니다.

Q. 대학원 진학 동기?

솔직히 학부 때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 학과 공부에 뜻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4학년이 되면서 스스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제야 공부에 대한 열의가 생긴 거죠. 마침 졸업과제를 인공지능연구실에서 하게 되면서 자연언어 처리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Q.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인공지능에 관련한 여러 문제 중 자연언어처리를 주로 다룹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서 기계가 우리말을 이해하게 하거나 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계번역, 자동질의응답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플 사의 시리(Siri)도 자연 언어 처리분야의 산물입니다.

Q. 대학원 생활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저는 전문연구요원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습다. 따라서 단체생활이라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여러 선배나 후배들과 한 식구처럼 지내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같이 밤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Q. 학부생활과 대학원생활의 차이점?

학부 때의 공부는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제를 하고, 시험공부를 하고 조금 수동적인 삶이었던 거 같습니다. 반면에 대학원에서는 능동적인 삶으로 변한 거 같습니다. 대학원은 학부와 필요하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게 된 삶이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더 찾아 공부하게 되고 며칠 밤을 새우는 일도 다반사고요. 그래도 그것을 끝냈을 때의 성취감은 학부 텀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의 그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Q. 정보컴퓨터전공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일반 사람들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가지는 관심도가 여느 때보다 큼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태생적으로 가진 자원 자체가 한정적인 곳에서는 이러한 분야가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생소한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 분야는 알게 모르게 많이 접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근함도 들고 훨씬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꾼 아홉 가지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보면 정보통신 분야가 얼마나 재미있는 분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Q. 학부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학부 때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외 활동에 더 많이 치중했죠. 물론 그 속에서 얻은 것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함께 많은 것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감상에 젖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일들이죠. 함께 공모전에도 나가 보고, 배낭여행도 가보고, '그냥 좀 더 많이 놀았어야 했었어'가 아니라 뭔가 남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꿈이 있다면?

지도교수님 권혁철 교수님처럼 한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20년 동안 계속하고 계신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처럼 일반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평생 하나의 무언가에 집중하고 열의를 다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민호 (인공지능연구실 박사 09)

E-mail : karma@pusan.ac.kr

